



일본 교가미사키 엑스밴드(X-band)레이더 기지 모습. 흰색원 안에 있는 것이 사드 레이더. 한반도 동해 바다쪽으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 골프공 모양이 통신시설, 오른쪽이 발전기 및 방음시설. 2015. 7. 31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교가미사키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를 가다!

김판태 전주평통사 사무국장

지난 7월 31일 평통사 일본방문단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시설인 엑스밴드(X-band) 레이더(AN/TPY-2)가 설치된 교가미사키를 방문했습니다.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방문은 미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향후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교토에서 「X-band 반대 교토 연합회의」에서 일하는 이케다 활동가와 나가야 활동가가 인솔과 해설을 맡아 주셨으며, 교탄고시 현지에서 엑스밴드레이더 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다케다 활동가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는 교토부 교탄고시 우카와 지역으로 교토시에서 북쪽으로



일본 교가미사키 엑스밴드(X-band)레이더 기지가 있는 우카와 마을 해안 풍경.

16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 절벽에 있었습니다. 교탄고시는 인구 5.8만명의 작은 소도시로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 공무원과 교사, 자위대원들이 많으며, 레이더 기지에 인접한 우카와 지역에는 14개의 작은 시골마을에 600여 가구 1,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는 북서쪽으로 우리나라의 동해와 접해 있는데 바닷물은 매우 맑고 여러 개의 주상절리와 해수욕장이 이어져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세미나 참가자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한 평통사 일본방문단은 먼저 우카와 지역의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 대표는 “국제적인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니 주민들은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었지만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인 나가이 도모아키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 유지의 모임」 사무국장은 “레이더 기지 건설 과정에서 교토부와 교탄고시는 기지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민들과 합의했으나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었다. 주민들은 지금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160명의 미군과 미군속들로 인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오늘 현장을 정확히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가이 사무국장은 이곳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곳은 레이더의 장애물이 없는 바닷가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건설경과

2013년 2월

아베-오바마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교가미사키 기지에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 합의

2014년 5월

레이더 설치 공사 시작

2014년 10월

레이더 반입 및 12월, 레이더 본격 가동

2015년 7월 현재

미군 숙소 공사 중.



우카와 지역주민 대표의 발언

이며, 자위대의 레이더 기지가 있던 곳이어서 미군 레이더 기지 설치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적이라고 보는 것은 중국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곧바로 레이더 기지가 있는 교가미사키로 향했습니다.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해상 자위대와 마나몽주 절터와 미군기지가 나란히 이어져 있었으며, 레이더가 설치된 미군기지는 예전에 자위대의 레이더가 있었던 곳으로,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그 자리에 미군의 엑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것입니다.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는 괌 등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탐지·추적할 수 있도록 북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옆의 마나몽주 절은 수백년 된 소나무 수십그루가 있는 유적지이며 자연보호지역이지만 일미정부는 이 지역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땅 3.6헥타를 수용(임대)하여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마나몽주 절터에서 철조망을 통해 20~30 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레이더 기지 안의 덮개에 씌여진 레이더 건물, 골프공 모양의 정보송수신 통신시설, 발전기, 발전기 소음 저감시설인 머플러, 방음시설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 안에서 미군들과 소총을 든 미국 경비업체 직원들이 방문단을 촬영하며 경



덮개가 씌여진 레이더 건물. 전자파에 의해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매우 심각했다.

마을 뒤편 산에 위치한 일본 자위대의 레이더 기지

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기지 정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과 함께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넘을 시에는 미군기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일본법의 10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설치된 레이더 기지는 주민토지 강제수용, 강력한 전자파,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등 심각한 주민 피해를 낳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단도 레이더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웅웅~하는 레이더 기지 소음과 전자파 때문에 속이 매스껍고 울렁거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레이더 기지에서 3백 미터 떨어진 오와 마을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들리는 레이더 기지의 소음으로 밤에도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자파와 소음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도시에서 거주하던 딸이 이곳에서 출산한 후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어지럼증과 구토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당국에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기지 건설 전 교토부는 레이더 제조사인 레이션사 자료를 근거로 전자파를 조사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청도 소음, 수질, 전자파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이더 기지 건설 과정에서 위사람들(정부)의 결정을 아랫사람들(주민)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미 정부가 기지 건설을 강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지 건설 이후 전자파와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 경비원 등 미군속 숙소 공사 현장



레이더 기지에 반대하며 땅 수용을 거부한 주민이 자신의 땅을 내 놓아 레이더기지 반대 투쟁하는 사람들이 “평화 채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고, 미군과 미군속의 주민 폭행, 주거침입,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레이더 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미정부에 의해 땅을 수용당하고 주민 1인당 연 평균 30만엔(약 282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수용을 끝까지 반대한 주민도 한명 있었습니다. 이 주민은 자신의 땅 약 300여평을 레이더 기지 철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PEACE FARM(平和菜園)”이라고 이름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투쟁에 큰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미정부는 미군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회사를 통해 레이더 기지 경비원 등 미군속 140명의 숙소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교토 등지의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반대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월 2회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방문을 통해 레이더 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당하게 될 건강과 환경 피해의 심각성과 레이더 기지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반대 투쟁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해 건설되었듯이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 철거투쟁과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도 결국 동북아 민중들의 평화를 위해 서로 연대해야 더욱 힘있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